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전교 주일
제36권 47호(다해) 2016년 10월 23일

[묵상]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답화] 2016년 제90차 전교 주일 교황 담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가 지내고 있는 자비의 특별 회년은 2016년 전교 주일에도 특별한 빛을 비추어 줍니다. 자비의 회년은 우리에게 만민 선교를 영적 육체적으로 위대하고 엄청난 자비의 활동으로 여기도록 초대합니다. 전교 주일에 우리 모두는 선교하는 제자로 밖으로 나아가 저마다 자신의 능력, 창의력, 지혜, 경험을 기꺼이 나누어 온 인류에게 하느님의 온유함과 연민을 전하여 주도록 권유받습니다. 교회는 선교 사명의 정신으로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돌봅니다. 교회는 모든 이가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바라고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뛰는 심장인 하느님의 자비를 알려야”(칙서, 「자비의 얼굴」, 12항) 하고, 또한 세계 방방곡곡에 자비를 선포하여 남녀노소 모두에게 다가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만나시면 자비가 하느님 마음 속 깊이 기쁨을 불러일으킵니다. 처음부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취약한 이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위대함과 권능은 젊은이들과 소외된 이들과 억압받는 이들을 당신과 동일시하실 수 있는 것에서 분명하게 (6,7면에 계속)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출발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80-2789

미사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학생 복사단 (둘째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후 4:00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베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꾸리아 오후 1:30 3제주 - ●요셉회 4제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2:3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금,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주임신부 : 오창근 메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이용식 베드로, 이순자 레지나, 홍익호 라파엘 & 김려성 모니카 (생)홍숙자 막달레나 & 유재웅 & 박종유, 노천수 프란치스코 & 노영자 마리아
주일 학생	(연) (생)박영식 안드레 & 박인수 프란치스코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서성용 베드로, 최근석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이석진 가브리엘, 양한석 루치아노, 정을진 (생)손석 스테파노, 황윤재 베드로가정, 박영희 아가다, 이호재 토마스, 박태원 토마스 아퀴나스, 박정미 클라라, 김형이 데레사, 최경숙 아네스 & 최동한 안드레아, 조영우 스테파노, 김정심 크리스티나, 겸손하신 어머니 Pr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Isaiah) 2,1-5

화답송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제 2독서 로마(Romans)10,9-18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복음 마태오(Matthew)28,16-20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한국 교회의 역사

제3부 한국 교회와 현대 사회(1945-1999년)

1. 분단 시대의 교회

1. 분단 시대 출현과 교회(1945~1953년)

1-1. 해방 공간의 교회

해방은 한국사와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현대의 기점이 된다. 한국이 해방된 8월 15일은 바로 '성모 승천 대축일'이었다. 이에 한국 교회는 해방을 성모 마리아의 선물로 해석하고 해방의 기쁨에 동참하여, 민족의 해방과 세계 평화의 회복에 감사하는 미사를 전국 성당에서 집전하는가 하면 적지 않은 성당에서 특별 행사를 열었다. 이와 함께 선교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해방 당시 한국 교회에는 5개의 교구(대목구)와 3개의 지목구, 1개의 수도원 교구(면속구)가 있었고, 신자 수는 대략 18만여 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남한에는 서울교구, 대구교구, 전주지목구, 광주지목구, 춘천지목구 산하에 약 11만여 명의 신자들이 있었다. 북한에는 평양교구, 함흥교구와 덕원수도원교구에 약 5만여 명의 신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만주의 연길교구에 2만여 명의 신자들이 분포되어 있었다. 이 신자들 외에도 300여 명의 내외국인 성직자와 400명 남짓한 수녀들이 있었다.

1945년 9월에는 미국 군대가 남한에 상륙하였다. 남한 교회에서는 이들을 환영하면서 선교의 방향을 찾고 있었다. 한편 이에 앞서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도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들이 진주한 북한 지역 교회에서도 해방의 기쁨은 마찬가지로 컸다. 북한 지역 교회도 해방 축하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해방을 교회 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남북한 교회는 이와 같이 모두 해방의 기쁨에 동참하였으나, 본의 아니게 일본이 수행하는 전쟁을 묵인하거나 협조한 과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로써 해방 공간의 종교 신앙인들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보류한 채, 해방의 감격에 젖어 있었다.

당시 남북한의 인구 규모를 감안할 때 천주교 신자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0.72%정도였다. 해방을 전후하여 사회 지도층에 있는 신자도 극히 적었다. 천주교회가 운영하는 각종 교육 기관이나 사회 복지 기관도 소수였다. 그러므로 천주교가 식민지 사회와 해방 공간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

<계속>

	토요 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15	215	200
봉헌	268	268	267
성체	283	283	287
파견	225	225	215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의미 있는 삶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모든 민족이 주님의 집이 있는 산에서 주님의 길을 걷게 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전합니다. 그 주님의 빛 속을 걸으며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노래합니다. 마태오 복음에서는,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권한으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 하십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를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았다면 관상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광경에 함께 참여해 보시길 권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은총을 새롭게 해줄 것입니다. 그 광경에 참여하면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느님의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우리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례의 광경을 관상하며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더욱 하느님과 친해져야 한다는 것, 하느님을 매일 만나 그분께서 얼마나 예수님과 자신을 많이 사랑해주셨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 자신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 또한 성령께서 이끄시는 영성 생활을 통해 성령의 활력을 체질화한다면 주님의 의미 있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분의 가르침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요한 8,31)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에는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로마 10,9-10)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육화하시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수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힘으로만 가려 한다면 힘든 길일 것이고, 주님의 주도권을 체험했다면 기쁜 길일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권한을 받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늘 곁에서 제자들이 그것을 실천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고 격려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9-20)

◆김창훈 바오로 신부 / 영신 수련 담당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사벳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박혜경 레나타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한경숙 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도서 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김교복 레오	박진수 스테파노
제2독서자	정진욱 노엘	김금자 테레사	박혜경 레나타
제물봉헌자			토남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목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목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10월 목주기도 성월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입니다. 목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 성화,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목주기도를 바치는 달로, '목주기도 성월 기도문'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 ◆ 배론 청년회원을 모집합니다.
대학생부터 미혼남녀 청년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토요일 저녁 미사후에 회합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유보나 보나 ☎(310)755-9837

◆배론 청년회 CBLM 성서센터 피정

- 일시 : 10/21~23 (금-일)
- 주제 : 탈출기 사막연수
- 참가자 : 정진욱 노엘, 유보나 보나

◆주일학교 교사 & 배론 청년 일일 피정

- 일시 : 11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8시
- 장소 : St. Mary's Catholic Church
(지도 신부님: 김 마티아스 신부님)
- 주제 : 서번 리더쉽, 교리의 비전 그리고 교실 안과 공동체 안에서의 대화와 소통

◆ 남가주 추수감사절 성가경연대회

2016년 남가주 추수감사절 합동미사 2부 행사에 각 성당별 성가 경연 대회를 위한 연습이 오늘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3:30분에 있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님의 참석을 부탁 드리며, 각 구역의 반장 및 구역 장께서는 이번 행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길 부탁 드립니다.

- 곡명: I Will Follow Him
- 문의: 김용 스테파노 (310)926-2248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0월23일: * 토동1반 :카레라이스(\$3)
* 주일학교 : 밋볼 샌드위치 (7학년)
- 10월30일: * 토복1,2반 : 홍합미역국(\$3)
* 주일학교 : 치킨 케사디아 (6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고천용 권태만 김선영 김성택 김순옥 김여순 김정희 김 준 노천수 류현욱 박광자 박진수 박혜정 서용숙 신순철 엄세중 오신재 원건희 윤화경 이우성 이은경 이재정 이태욱 정지숙 최길주 최원석 한혁수 홍인표 황인종 황지영 한길선례 합계:\$ 4,095	성전헌금 고천용 권태만 김 준 박광자 서용숙 신순철 원건희 윤화경 이우성 이재정 정지숙 최길주 최원석 한혁수 황인종 황지영 한길선례 합계 : \$1,930
주일미사헌금 : \$2,128 전교헌금: \$621	감사헌금 : \$ 200 주일학교: \$500

☺ 서로 인사 합니다. ☺

남가주 소식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주관 2016 성장 세미나

- 일시: 10월 28일(금) 오후 4시-30일(주일)오후 5시, 2박3일
- 장소: 아씨시피정센터(Poverello of Assisi Retreat H.)
1519Woodworth St. San Fernando, CA 91340
☎ (818)365-1071
- 강사 : 김태광 아우구스티노(팔로티회)
- 참가비 : \$100
- 참가자격 : 전신자
- 준비물 : 성경,묵주,필기도구, 세면도구,미사봉 헌금
- 문의: 각본당 기도회장,강혜원 아네스(310)780-0369,
봉사회 교육부장(714)345-4791
- 주관: 남가주 성령 쇄신 봉사회 (K.C.R.M.) ☎ (714) 343-4771

◆KCBC 미주 카톨릭방송 설립 20주년 찬양의 밤

- 일시 : 2016년 10월 28일(금) 저녁7시
- 장소: 성 토마스 성당 (St. Thomas Korean Catholic Center)
- 문의전화: 213 256 5708 / 카카오톡 아이디: kcbcus

*** KCBC 미주 가톨릭에 새로운 엔지니어로 봉사해 주실 분과 사무일을 봉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

- 문의 :PD신은경 베로니카 ☎ (231)256-5708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신현화 헬레나 10/5 (수)12시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장수영패트릭 10/15(토)오후6시30분성당강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10/21(금)오후7시30분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김충섭 마틴 10/8(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홍광선 요셉 10/8(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방미숙 마리아 10/18(화)오전10시30분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남구역 모임 10/30(일)오후12시30분(공원)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남구역 모임 10/30(일)오후12시30분(공원)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남구역 모임 10/30(일)오후12시30분(공원)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권 세실리아 10/17(월)오후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 9171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숙자 수산나 10/15(토) 오후6시30분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도 384-3289	남성철 베네딕도 10/7(금)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윤성진 안드레아 10/15(토) 오후6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장원철 안드레아 10/7(금) 오후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10/11(화)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사목회의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	--

드러나기 때문입니다.(신명 4,31; 시편 86[85],15; 103[102],8; 111[110],4 참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친절하시고 [우리를] 보살피 주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므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가까이 하시어 모든 이와, 특히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시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가정의] 부모가 자녀의 삶을 위하여 하는 것과 똑같이 인간의 현실에 온유함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예레 31,20 참조). 성경에서 자비를 언급하며 사용하는 표현은 어머니의 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언제나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는 어머니 태에서 나온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본질적 측면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이 사랑은 특히 당신께서 직접 창조하시어 키워주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이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들의 나약함과 불성실함에 직면하시어도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연민으로 북받쳐 오르십니다(호세 11,8 참조). 하느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자비로우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이를 사랑하시고,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연민을 느끼십니다(시편 145[144],8-9 참조).

자비는 강생하신 말씀 안에서 가장 고귀하고 완전하게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비로 넘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얼굴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비유와 비교로 자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설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당신께서 몸소 자비를 인간이 되게 하시고 인격화하셨습니다”(회칙 「자비로우신 하느님」, 2항). 우리가 복음과 성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 삶을 하느님의 선하심의 표징인 거저 받은 선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자비의 얼굴」, 3항 참조). 교회는 무엇보다도 인류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눈길을 깨닫고 그분께서 자비로운 사랑으로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하여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며 나누는 대화를 통하여 이 사랑을 모든 민족들이 알도록 합니다.

초기 교회처럼, 연령과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이가 이러한 자비로운 사랑을 증언합니다. 선교 분야에서 남성들과 함께 활동하는 여성의 존재감이 상당히 증대된 것은 하느님 모성애의 중요한 표징이 됩니다. 여성 평신도나 수도자들, 심지어 오늘날 많은 가정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서부터 봉사 활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의 선교 소명을 수행합니다. 선교사들의 복음화 활동과 성사적 활동과 더불어, 여성들과 가정들은 종종 사람들의 문제를 더 적절하게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바람직하고 때로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을 돌보면서 조직보다는 인간을 더 중시하며, 인적 영적 자원을 분배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삶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 조화, 평화, 연대, 대화, 협력, 형제애를 구축해 나가며, 특히 가난한 이들을 돌봅니다.

많은 곳에서 복음화가 교육으로 시작되어 선교 활동을 하는 이들은 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마치 복음에 나오는 자비로운 포도 재배인처럼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교육을 실천한 이후에야 얻게 되는 열매를 인내롭게 기다립니다(루카 13,7-9; 요한 15,1 참조).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복음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이들 또한 교회를 어머니로 여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분을 만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비의 모성적 봉사를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끊임없이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선물이지 개종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신앙과 사랑으로 커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한한 사랑, 곧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품고 세계 곳곳의 거리를 누벼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선물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랑입니다.

모든 민족들과 문화는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의, 전쟁, 인도적 위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할 때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경험으로부터 용서와 자비의 복음이 기쁨과 화해,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라는 복음의 사명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는 현재 상황에서 모든 도전에 맞서 새로운 선교 여정에 나서라는 부르심에 귀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관하여 저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는 주님께서 가리켜 주시는 그 길을 잘 식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안위를 떠나 용기를 갖고 복음의 빛이 필요한 모든 ‘변방’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따르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20항).

이 회년에 우리는 제90차 전교 주일을 맞이합니다. 전교 주일은 1926년에 비오 11세 교황께서 처음 승인하시고 교황청 전교회가 주관하였습니다. 이에, 저의 선임 교황들의 현명한 지침들을 상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분들께서는, 전 세계 모든 교구, 본당, 수도회, 협회, 교회 운동에서 헌금을 모아 교황청 전교회로 보내어, 어려운 그리스도 공동체를 돌보고 심지어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그 헌금이 사용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러한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의 행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에만 집착하지 말고, 온 인류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합시다.

구원받은 인류의 숭고한 표상이자 교회 선교사들의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님께서 모든 이와 가정 이 부활하신 주님의 살아있는 신비로운 현존을 어디에서든 알리고 지켜나가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인간관계와 문화와 민족들을 새롭게 하시며 모든 이를 기쁨이 넘치는 자비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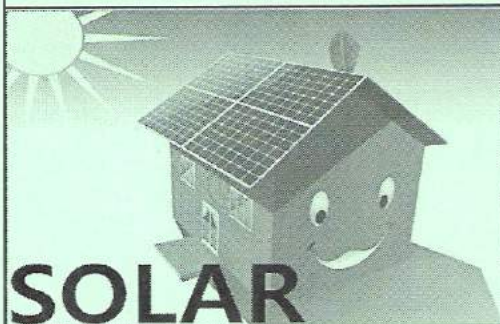
바티칸에서 2016년 성령 강림 대축일
프란치스코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422 LA, CA 90006
☎(213)480-0911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AmGreen Solar / LED
윤철 아오스딩 310-321-8600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융자 / 매융자 / 홈 에퀴티 라인

Tax 보고서 없이가능(30년 고정)

Direct Lender

이인석 비오 (213)393-5572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쟈마-

TO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시 대기

TEL)310-516-8282

조셉 홍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 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영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CB965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잔.캐더링주론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한스 전자

냉장고, 세탁기,TV,가전제품

TEL: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피노



Heather Chong (정혜경)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